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당일군의 전형

경 원 군 당 책 임 비 서 서 격 호 동 무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전환적기로서 되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또 한명의 당일군이 시대와 인민의 축복을 받으며 영광의 단상에 올라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당일군의 전형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석길호동무는 우리 당이 키워낸 조국의 참된 아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피사로운 품속에서 자란 우리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높아야 하며 수령을 모시고 당을 받드는 실천활동에서 자기의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석길호동무는 훌륭한 당일군이기 전에

이 땅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20여년전 두만강의 청신한 공기를 마시며 한 사람이 통당나루터에 서있었다. 깊은 상념에 잠겨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가 바로 군당책임비서로 임명되여온 석길호동무였다.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라고 웨치던 항일선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고 흐르는 두만강의 푸른 물결마저 그 것이 어찌 붉은빛으로 안겨오는 혁명전적에서 선 석길호동무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땅에 내가 왔구나. 항일선열의 붉은 피가 뜨겁게 스며있는 성스러운 이 땅을 내 한몸이기에 진하도록 가꾸고 빛내리라!)

다음날 군당에서는 협의회가 열렸다. 석길호동무가 책임비서로 와서 소집한 첫 협의회였다.

《저는 어찌 통당나루터에 갔었습니까.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한 넋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여있는 우리 경원평원인가. 그렇지만 우리 경원군당 일군들의 사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에 군인의 항일혁명사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십시오. 이것이 군당위원회의 첫째가는 사업이고 생명입니다.》 석길호동무가 이렇게 말하는데는 일리가 있었다.

경원군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성스러운 항일혁명전투의 한부분이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군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전적지는 몇개 있었으나 혁명사적지는 하나밖에 없었다. 아버지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고고단들, 혁명력사를 연구해보아도 그렇고 군의 지리적특성을 놓고보아도 여기에 아직 미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석길호동무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던것이다.

그날 책임비서의 호소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협의회참가자들 누구나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이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를 다서 읽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군에서는 혁명사적발굴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게 되었다. 석길호동무는 혁명사적일군들로서 강력한 력량을 무어 학술연구를 앞세우는 한편 당시의 생존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내밀었다.

세월의 이기속에 묻혀있는 혁명사적자료들을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40여년전, 지어 50여년전의 생존자들을 찾아 친리길을 달려갈 때에도 있었고 그렇게 찾아간 걸음이 허사가 되어 돌아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석길호동무는 당의 귀중한 뿌리이고 조국사람인 혁명전통의 귀중한 자료를 하나라도 못하게 한다면 조국과 인민에게 천추를 두고 죄를 짓게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며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석길호동무는 구호문헌발굴사업도 동시에 벌이고나갔다. 태고연한 밀림속을 헤쳐다니 진행되는 구호문헌발굴사업은 말그대로 바다의 진주를 찾는것과 같은 일이었다.

석길호동무는 우선 평범한 력량을 동원하여 군인의 수만정보에 달하는 산림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작업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조하여 구호문헌발굴대를 조직하고 자신이 직접 일장에 나섰다.

통제리 가재물골에서 처음으로 6점의 구호문헌을 찾아낸 발굴대가 여러달동안에 걸쳐 연 6,000여리의 답사를 마친 날 저녁이었다. 구호문헌발굴지에서도 놓고 그동안의 답사정형을 알아보면 석길호동무의 눈길이 연산리 생산골지역에서 멎었다. 골짜기의 마지막 다섯그루의 나무번우후에 약속된 기호가 울려지듯 앉았던것이다. 그 기호란 접질렀기 나무에 구호문헌이 있는가 없는가를 최종확인하고 결과물(○) 또는(×)라고 써넣는 것이었다.

석길호동무는 급히 발굴대책인자를 찾아 사연을 알아보았다. 생산골은 골짜기가 깊지 않은데다가 예로부터 농사가 잘되어 인적이 많았던 곳이며서 구호문헌이 있을상심치 않아 단념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돌아왔던 말이요?》

책임비서의 격한 목소리에 발굴대책인

자들은 애국가라고 말할수 있다. 조국의 복원 경원군을 사회주의생애,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하고있는 수천수만의 애국자들의 앞에는 다름아닌 석길호동무가 서있다.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어 경원평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들에 무수히 적어간 그의 발자욱마다에서 는 이런 참된 삶의 메아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이 땅을 사랑하라! 석길호동무의 삶과 투쟁은 경애하는 장군님 시대 당일군은 과연 어떤 사람이여야 하며 시대가 바라는 참된 혁명가의 높이에 올라서자면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교본으로 된다.

그의 머릿속에는 딸 명희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10여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명희는 교원이 될것을 꿈꾸고있었다. 외동딸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느끼며 자란 그는 몇해전에 중학교를 졸업한 오빠를 탄광에 내보낼 때처럼 아버지

가 《책임비서의 자식이라고 편안한 곳만 찾으면 되겠느냐.》라고 할것 같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명희를 사범대학에 추천하였고 그는 밤을 밝혀가며 입학시험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나 석길호동무는 딸의 인생길을 다르게 그어주었다. 어느날 깊은 밤 《아버지는 내가 농촌에 진출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던것이다.

명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다. 어머니를 품에 안겨 호느껴올며 명희는 서러움을 터놓았다. 《책임비서의 딸이면 대학에 가지 말아야 하나요?》

《책임비서의 딸이여서가 아니라 경원군의 새 세대로서 가야 하는 길이다. 넌 언제 중학교가 아니라 나라의 공민이다.》

그날 석길호동무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 일어났다. 그는 사랑하는 딸의 뒤를 밟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던것이다. 며칠후 농촌에 자원진출하는 졸업반학생들의 길기모임에서 명희는 첫 걸의 토론을 하였다. 그해 군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자원진출한 수백명의 청년들로 13개의 청년전업반, 청년분조가 조직되었다.

향토의 오프백패를 위해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친 명희가 그것도 상급의 조지에 의하여 조동되는 남편을 따라간다고 하여 다행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석길호동무에게 있어서 명희는 딸이기 전에 농촌의 새 세대,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기동감의 하나였다.

두만강연안의 벼들까지에 파랗파랗 새우이 트고 골마다 흘러내리는 눈썹임물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정한 봄의 정취를 한껏 안겨주던 그해 봄 어느 날 석길호동무의 집터밭에 한복 피마나 날한 16개의 나무가지들이 울려나왔다. 지난 가을 어느 출장길에서 석길호동무가 새 품종의 나무에서 잘라 짐속에 넣어가지고온것이였다.

그때부터 그는 짝만 있으면 나무가지들을 정신했이 들여다보곤 하였다. 안해인 윤정숙동무는 낫씩이나 낫아키우도록 언제나 잔디를 정리하며 들어다본적 없는 기술이 하찮은 나무가지에 실혈을 기울이는것이 어처구니없어 웃곤 하였다. 그럴 때면 그는 안해가 그쪽에 일선도 못하게 공연한 으뜸장을 농곤 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석길호동무는 그 나무가지들을 정신했이 들여다보곤 하였다. 안해인 윤정숙동무는 낫씩이나 낫아키우도록 언제나 잔디를 정리하며 들어다본적 없는 기술이 하찮은 나무가지에 실혈을 기울이는것이 어처구니없어 웃곤 하였다. 그럴 때면 그는 안해가 그쪽에 일선도 못하게 공연한 으뜸장을 농곤 하였다.

《물론 결실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교졸업생처녀가 아니라 한가정의 주부이고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도 남편도 《너희들같은 농촌의 새 세대 가정은 100, 1,000으로 늘어날수록 조국의 대지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내 나라의 얼마나 강해지겠나.》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 로동당원이 아니니까.》

책임비서가정의 모범은 농촌로력문제해결의 불씨로, 추동력이 되었다. 피땀은 청년들이 농촌로력의 주력으로 나섰고 농촌에 진출하여 매해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여차없이 받아안은 군당가족들의 힘을 이어 군당가족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의 이해들이 농업전진을 맡아나섰다. 3년전부터는 고전전반향, 풍북청년반향의 수천명의 탄부안해들과 읍지구 로동자, 사무원가족들이 사회주의 농촌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냈다. 이렇게 되어 오늘 경원군은 자체로 농사짓는 군이 되었다.

당정책의 운명은 일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 석길호동무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불같은 기수의 모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오늘 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에는 시험본조가 있으며 시험본전면적은 100여정본나 된다. 여기에서 수시종의 천수백가지에 달하는 농작물의 시험재배가 통이 크게 진행되고있다. 결과 군에서는 10여종의 우량품종을 풍토순화시켜 알곡생산량을 훨씬 늘였다. 종자혁명은 두벌농사의 결정적담보로 되어 성과는 놀라울정도로 확대되고있다.

이런 사회주의 성과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대지에 뿌린 석길호동무의 피와 땀의 대가이며 불같은 지혜와 열정의 산물이다.

몇해전의 일이다. 군간기관에서 일하던

이곳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말이 있다. 《박사책임비서! 《논두렁책임비서!》 석길호동무가 사무실을 도서판, 교실로 삼고 사색과 탐구로 불태워온 20여년세월의 밤은 얼마였고 시험포전에서 맞은 새날은 또 얼마였는가.

언제인가 석길호동무의 전화를 받고 그의 방에 들어서던 군당의 한 일군은 몸이 굳어졌다. 책임비서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는 순간 짐작되는것이 있었었던것이다. 그것은 석길호동무가 며칠전에 함께 보고 토론해보자고 하면서 나누어가졌던 새로 나온 농업과학기술 도서였다. 마지막장을 번지고난 책임비서가 책을 다 보았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일이 바빠 책을 절반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바쁘면 책임비서보다 더 바쁘겠는가. 책임비서는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이곳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말이 있다. 《박사책임비서! 《논두렁책임비서!》 석길호동무가 사무실을 도서판, 교실로 삼고 사색과 탐구로 불태워온 20여년세월의 밤은 얼마였고 시험포전에서 맞은 새날은 또 얼마였는가.

언제인가 석길호동무의 전화를 받고 그의 방에 들어서던 군당의 한 일군은 몸이 굳어졌다. 책임비서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는 순간 짐작되는것이 있었었던것이다. 그것은 석길호동무가 며칠전에 함께 보고 토론해보자고 하면서 나누어가졌던 새로 나온 농업과학기술 도서였다. 마지막장을 번지고난 책임비서가 책을 다 보았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일이 바빠 책을 절반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바쁘면 책임비서보다 더 바쁘겠는가. 책임비서는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이곳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말이 있다. 《박사책임비서! 《논두렁책임비서!》 석길호동무가 사무실을 도서판, 교실로 삼고 사색과 탐구로 불태워온 20여년세월의 밤은 얼마였고 시험포전에서 맞은 새날은 또 얼마였는가.

언제인가 석길호동무의 전화를 받고 그의 방에 들어서던 군당의 한 일군은 몸이 굳어졌다. 책임비서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는 순간 짐작되는것이 있었었던것이다. 그것은 석길호동무가 며칠전에 함께 보고 토론해보자고 하면서 나누어가졌던 새로 나온 농업과학기술 도서였다. 마지막장을 번지고난 책임비서가 책을 다 보았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일이 바빠 책을 절반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바쁘면 책임비서보다 더 바쁘겠는가. 책임비서는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넌은 지식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옮겨 할수 없소. 일군들부터 새 지식의 탐구자, 보급자가 되어야 하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 공부할 해야 합니다. 조개썰수룩 커지는것이 시간입니다.》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조개썰수룩 커진다는 책임비서의 시간철학은 일군의 가슴을 울렸다. 중앙파도에 회의갈 때마다 목직 한 책가방을

성은 강성대국건설의 격동적인 시대 우리 당일군들의 당성, 혁명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석길호동무의 일일성과 요구성에는 끝이 없다.

지금 군에서 진행되고있는 방대한 규모의 저수지공사와 발전소건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몇해전 석길호동무가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저수지공사를 맡기하였을 때 사람들은 적극 지지하며 떨쳐나섰다.

농촌로력문제가 해결되어 자체로 농사를 지으려면 해마다 농업생산이 늘어나 군산림이 풍족해지고있는데 저수지공사까지 완공되면 1,000여정보의 논을 더 풀수 있으니 만사를 계획하고 해볼만 한 일이었다.

그런데 저수지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지난해 석길호동무는 또다시 발전소건설을 제의하였다.

아직 저수지공사도 끝나지 않은 형편에서 또 다른 일만을 벌여놓으려는 책임비서의 발기에 일군들은 놀라움에 앞서 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군의 실패를 놓고볼 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것이다.

이때 석길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찌 당보에서 후대들을 위하여 일군들이 더 많은 집을 지고 두들, 세물일할대 대한 요구가 당긴 사실을 읽고 많은것을 생각하였습니까.》

우리 군의 경우만 보아도 2012년까지 저수지만이 아니라 발전소도 일떠세우고 양어장과 살림집 그리고 그밖의 많은것을 하루빨리 다 건설하라는것이 바로 당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름차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한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피땀만큼 매일은 여기 우리모두의 자식들에게 그 덕이 차려질것입니다.

맑은 매일은, 맑은 오늘에! 이런 관점으로 그는 지난 20여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7,0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과 20여정본의 양어장과 염소목장, 두만강조안공사...

석길호동무는 오늘도 후대들에게 넘겨줄 한가지 제부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하여 쉬임없이 뛰고 또 뛰고 있다. 먼 후날 경원평의 푸른 숲은 후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 시대의 애국자들을 대한 찬가를 들려줄것이다. 그 산림속에 석길호동무의 심장의 노래도 아름답게 울려갈것이다.

후대들이 부락을 누릴 이 땅을 자신의 살붙이처럼 열렬히 사랑한 한 애국자의 영원한 삶의 메아리가 되어...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석길호동무가 흘린 땀은 하나둘 풍성한 열매가 되어 맺히고있다.

군인의 인민들은 20여년동안 책임비서로서 이 땅에 바친 사랑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컴퓨터화된 의료설비들이 그치지 않고진 현대적인 군인민병원에 가면 일군들과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든 책임비서의 비상약학과 민간로법비수첩에 대한 말을 들을수 있다. 해마다 일떠서는 새 살림집들이 찾아오면 《나는 마지막 집들을 받겠소.》라고 한 책임비서의 말을 들을수 있다. 때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언제나 반겨맞아 분이 활짝 열리는 책임비서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무뎠음이 속을 터놓고싶은 석길호동무의 우선우선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경원군은 볼라보게 변했건만 석길호동무의 모습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도 그는 작업복차림에 색날은 로동복을 신고 허리에 발판을 찬채 경원군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들에 새 길을 내면서 걷고 또 걷고있다.

이런 애국자당일군이 어우러 조 선로동당은 65년의 력사를 우뚝히 위대하고 숭고한 애국의 서사시로 새겨놓 수 있었고 광명한 미래를 환희롭게 내다 볼수 있는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초석, 일심단결의 밑뿌리, 강성대국건설의 최후병이 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고 인민을 불러 일으키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일군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선군혁명정진군, 강성대국 건설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선 전체 당일군들의 가슴을 세계화 두드려서 석길호동무의 애국으로 불리는 심장은 이렇게 고공치고있다.

그대 진정성 우리 당의 일군이라면 혁명의 뿌리, 사회주의의 뿌리, 행복의 뿌리가 되라! 강성대국의 뿌리가 되라! 끝 말 사친 분사지가 김 영 철 분사지가 립 현 속



석길호동무 (가운데)

《동무들도 우리 장군님께서 떨고 협한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에서 원뿔화, 수필화 같은 단어들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가르쳐주셨습니까. 내 고장에 심을 나무가 따로 있고 다른 고장에 나무를 심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게 무슨 애국이었소.

푸른 숲을 펼치는것은 내 일, 내 일이 아니라 조국의 매일을 위한 우리모두의 책임이요. 난 책임비서만 아니라면 모든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림감독원이 되겠소.

그제서야 일군들은 왜 책임비서가 집드락에서부터 그토록 애지중지 나무를 심고 가꾸었는지, 그가 어이하여 그렇듯 푸른 숲을 사랑하는지 그 깊은 뿌리를 독특히 알게 되었다.

은 군이 떨쳐나 뜻곳마다 양묘장을 꾸렸다. 군산림정경소에서 불모의 땅을 버림받던 들밭을 개간하여 여기가 큰 양묘장을 하나하나 늘여갔다. 여기서 자체로 11만그루의 나무를 청년영웅들의 나무로 보냈고 그후 20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여러 시, 군에서 보내주어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참관기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국인민지원군관을 찾아서 (1)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맞받아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싸웠다.

공통의 원수를 반대하는 가철처절한 전회의 불길속에서 조종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은 더욱 공고한것으로 다져졌다.

뜻깊은 올해 조종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이 더한층 두터워지고 조종친선의 화원이 꽃피고있는 가운데 우리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으며 엄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꾸러져 있는 중국인민지원군관을 참관하였다.

최근 《세기와 더불어》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친근한 림방으로 살아온 조종 두 나라 인민들과 혁명가들은 항일대전의 그날부터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한전호에서 피와 살과 뼈를 나누며 함께 싸워왔고, 이 고귀한 투쟁전통과 형제적우애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앞으로는 계속 아름다운 화원으로 활짝 꽃피어나게 될것이라고 회고하신 내용이 삼삼할 때 떠올랐다.

참관자들의 가슴가슴은 헌원이 애송고한 국제적의리를 지니시고 조종친선의 고귀한 전통과 빛나는 역사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충만해져 있었다.

참관자들은 중국평토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그를 항의규탄하는 중국인민들의 투쟁자료가 전시된 벽면앞에 다가갔다.

《중국의 주은래총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경절경축대회 보고에서 중국인민은 외국의 침략을 철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항포로 우리의 이웃을 침략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인민일보>에 게재되었던 미제의 침략계획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미제는 조선을 침략한 다음 계속해서 중국도 침략하려고 하였습니다. 미제는 전쟁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조선전쟁이 실현되는 즉시 2단계로 넘어가서 국경을 돌파하고 제2차 세계대전과 장개석군대의 협동하에 중국까지 침략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중국평토에 대한 야수적폭격만행과 무모한 침략기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주은래총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경절경축대회 보고에서 중국인민은 외국의 침략을 철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항포로 우리의 이웃을 침략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중국평토에 대한 야수적폭격만행과 무모한 침략기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중국평토에 대한 야수적폭격만행과 무모한 침략기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주은래총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경절경축대회 보고에서 중국인민은 외국의 침략을 철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항포로 우리의 이웃을 침략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중국평토에 대한 야수적폭격만행과 무모한 침략기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중국평토에 대한 야수적폭격만행과 무모한 침략기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보건성 일군들과 정무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년간계획을 끝낸 기세로 힘차게 전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 의 주 마 이 싱 공 장 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는 조선로동당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위대한 당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자기의 위력과 존엄을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수놓으며 남달리 더욱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을 《로속하고 세련된 당》, 《주체혁명의 혁명적당》, 《자주시대 혁명적당들의 본보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중심》, 《진보적인들의 희망의 등대》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다.

체스코 체히, 모라바, 실레지아로 조형된 중앙위원회 집행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속에서 뿌리박은 대중적당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있으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를 제시한 당은 없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있다.

인제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할 것이다.》

이것은 그 한사람만의 심정기 아니다.

끼르키즈스탄 《끼르키즈어》 인민동일공화국정당 중앙위시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세계 진보적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당으로 되고있다. 지난 세기 말엽 그처럼 압록한 정세속에서도 조선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를 펼쳐놓은 것은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일동지를 총비서로 모시고 인민대중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승리를 떨쳐갈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처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통일체가 되고 어떤 로선상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돌리자고 이끌어 나가는 혁명적인 당은 이제 scarce 어디에도 없다.

우리 당이 겸양없는 난국을 과감히 헤치며 붉은 기록에 승리를 새겨주고있는것은 세계의 위인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경제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드림없이 확고히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를 방방하였던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의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아들였기에 조선

인민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자꾸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당들은 조선로동당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다, 당의 령도 밑에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새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계훈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백전백승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고 격정적으로 넘쳐 말하였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총위원회 조직자 (당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념대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현시대의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당이며 인민들에게 값있는 삶과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위대한 당이라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대중의 위대한 승리에 도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령도하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역사에 특기할 대 변혁의 해로 빛내이며 김정일성주적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정일성주적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사회주의 조국에 기어올라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있다.

세계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온 누리에 길이 떨쳐갈 것이다.

사 회주의 진 권 단 당 의 전 행 령

여 리 나 라 에서 행 사 진 행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년의 역사는 세계반동들의 끊임 없는 압력과 체제속에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한 영웅적조선인민의 투쟁의 역사이다.

얼마전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강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강연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 밑에 김정일성주적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고 격찬하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와 편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인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판잡주위원회 공보비서는 《영원한 김정일성주적의 당》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김정일성주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성주적께서는 항일혁명 투쟁의 나날 당창건의 조직

사상기초를 마련하시고 그에 토대하여 해방후 제일먼저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후 65년간 승승장구할수 있는것은 김정일성주적께서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의 진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기때문이다.

주석께서는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았다고 당을 위한 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인도하셨다.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집권당의 전형을 창조하신 김정일성주적은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정치가이다.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충실한 김정일총비서께서 계승하고 하여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존엄함을 김정일성주적의 당으로 그 위업을 길이 떨쳐갈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로라》가 상영되었다.

몽골과 로므니아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력사

여 리 나 라 신 문 이 특 집

으로 되고있는 선군정치 역사나라의 현실적요구와 자주적인 사상을 모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지켜냈을뿐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도약까지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성주적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올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 전진, 전군, 전민을 확고히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에서는 지금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이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오른 조건에서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선의 경제강국건설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년상은 인민을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력사이다.

수리아신문 《알 유흐다위》 1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인민의 불가늠을 모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하는 장군님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경제, 문화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 오직 승리만이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나를 카라》 3일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오늘 조선로동당이 국제사회에서 강철의 당, 불패의 당으로 위용 떨치고 있는것은 김정일성주적의 당창건 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라도대국주의동맹의 결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성주적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새 사회건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의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해왔다 하고 하면서 신문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이신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용과 더불어 그 창건자이신 김정일성주적의 업적을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오늘 조선로동당이 국제사회에서 강철의 당, 불패의 당으로 위용 떨치고 있는것은 김정일성주적의 당창건 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라도대국주의동맹의 결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성주적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새 사회건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의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해왔다 하고 하면서 신문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이신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용과 더불어 그 창건자이신 김정일성주적의 업적을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일 심 단 결 의 위 력

나 이 제 리 아 단 체 성 명 발 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성원들은 커다란 감동속에 접하였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주체사상신봉자와 진보적인 사들의 이름으로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와 경의를 드린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으로 되었다.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온 세상에 과시되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당-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더욱 위용 떨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여 세우는 조선로동당, 인민적정, 팽폭정치를 펼쳐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은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 만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본사기자

규 단 배 격 받 는 미 국

▲이런배우상이 3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규탄, 배격하였다.



지난 9월 29일 유럽의 대도시들에서 대 규모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가장 큰 시위는 유럽 동맹 본부가 있는 벨지오의 브뤼셀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는 로조대표들이 유럽 동맹 본부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행진에는 유럽의 30개 나라에서 10만명의 로조대표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에스파냐에서도 이날 로조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호르바츠카, 슬로베니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이날 안정된 일자리보장, 임금감소조치철폐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거리를 따라 행진하였다.

이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시위와 파업은 유럽방을 뒤흔들었다. 시위행진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병원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에스파냐에서는 시위대가 시료품을 배달하는 화물차들의 운행을 가로막아 bus부분 운정이 마비되고 항공회사들은 일부 항로의 비행까지 취소하였다.

격렬하게 벌어진 유럽나라들의

미국이 8명의 이란정부 고위관료들에 대해 금융 및 여행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에리트레아 무장 대변인이 2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에리트레아의 인권 상황을 절고들면서 에리트레아가 비정부가기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것을 요구해나선 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자기 나라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에리트레아의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판편하여 그는 그것을 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락인 하였다.

▲에리트레아 무장 대변인이 2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에리트레아의 인권 상황을 절고들면서 에리트레아가 비정부가기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것을 요구해나선 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자기 나라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에리트레아의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 랫 나 라 들 사 이 의 협 조

관 계 를 발전 시킬 것 을 호 소

튀니지대통령 진 알 바리덴 알리가 9일 아랍국가연맹 특별수석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랍나라들사이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킬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랍나라들이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새로운 공동행동을 펼칠것을 호소하였다.

세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아랍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랍나라들이 오상 협조를 강화하여 현대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팔 레 스티 나 민 족 당 국 의 립 장 을 지 지

에리트레아 무장 대변인이 2일 알 제이르가 3일 해외외교석상에서 유대인정착촌건설이 중단되지 않는 한 직접적담을 제하지 않기로 한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의 립장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회담이 계속 진행될수

있는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팔레스티나민족당의 립장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유대인정착촌확장책동을 당장 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파 레 스티 나 인 들 에 대 한 이 스 라 엘 군 의 폭 압 만 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매여들리고있다.

8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헤브론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2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고 여러명

지난 시기 파키스탄과 나토는 《반테로전》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동반자로 되었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나토사이의 동반자관계가 버그러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직승기들의 파키스탄군검문소공격사건이 그 기본계기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날아온 2대의 나토군직승기들은 파키스탄군을 침범하였으므로 파키스탄군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검문소들을 공격하였다. 나토군 직승기들의 공격으로 하여 파키스탄군인 3명이 현장에서 죽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군주도하의 나토군의 이러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포함하여 최근 여덟달 동안에 나토군의 공격은 4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군사적행동은 파키스탄의 존엄과 자존심을 심히 거슬러준다고 하며 이 나라 인민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에리트레아 무장 대변인이 2일 알 제이르가 3일 해외외교석상에서 유대인정착촌건설이 중단되지 않는 한 직접적담을 제하지 않기로 한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의 립장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유대인정착촌확장책동을 당장 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 스 라 엘 군 의 폭 압 만 행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라팔라 호시와 베들레헴시에서 유대인정착촌과 《안전장벽》건설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인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어 7명의 부상자를 냈다.

【조선중앙통신】

경유하고있다. 지금 미군주도하의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초토화작전》 등 여러 군사행동들을 벌리고있다. 만약 파키스탄이 나토군직승기들에게 따라서지 못하면 나토군의 군사활동은 큰 타격을 받을수 있다.

이로 하여 미국과 나토는 매우 초조해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이번 조치로 하여 군수물자수송이 지연되므로 나토군의 군사활동에 대한 《영향이크르모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해나섰다.

그러나 파키스탄수상은 《나토군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보다 강한 선택안을 검토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나토군보좌관들에 대한 공격사건들이 연방 일었다.

지난 4일 새벽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부근에 있는 한 도시에서 28명의 나토군 유조차들이 반정부병들의 공격을 받게 하여 적어도 12명이

본사기자 전 영 희

오 늘 이 몽 골

훈히 몽골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있다. 가없이 넓은 초원, 맑을 타고 초원을 하얗게 뒤덮으며 푸른메마당 흐르는 양떼들을 몰아가는 유목민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대자연속에 펼쳐지는 몽골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몽골에서는 영토의 78%가 방목할수 있는 평원이다. 초원에서는 양뿐만아니라 염소, 말, 소, 락타 등도 기르고있다.

몽골은 주민의 90% 이상이 몽골인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북부의 공업지구들과 초원지방에서 살고있다. 전체 주민의 4분의 3이 축산업에 종사한다. 몽골은 인구 1인당 짐승수마리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지러를 차지하고있다.

몽골사람들은 보통 《유르타》라는 천막집에 산다. 《유르타》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살림집으로서 조립식으로 되어있다. 천막집들에는 화로가 있는데 기구자승으로 하여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불을 피운다.

몽골사람들의 생활습속은 목축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몽골사람들의 주요음식물은 젖과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여러 가지 음식, 고기, 약간의 알코올로 만든 음식 등이다. 몽골사람들은 최근시기에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있다.

몽골에서는 영토에서 연설하면서 지난 시기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밝히었다. 그는 2014년까지 공동개발지구를 건설함으로써 몽골의 지하자원을 원료가 아니라 완제품으로 수출할것과 함께 산업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총생산액을 현재보다 2-3배로 늘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몽골에서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사육장, 집과 도로, 학교, 병원 등 건설을 추진하여 인민들이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고 하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몽골이 대사교관계를 맺은지 62년째 되는 날이다.

500m이상의 폭으로 총 9억 500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녹색장벽》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내밀고있다.

몽골정부와 인민들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지난 7월 몽골수상은 어느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지난 시기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밝히었다. 그는 2014년까지 공동개발지구를 건설함으로써 몽골의 지하자원을 원료가 아니라 완제품으로 수출할것과 함께 산업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총생산액을 현재보다 2-3배로 늘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몽골에서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사육장, 집과 도로, 학교, 병원 등 건설을 추진하여 인민들이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고 하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몽골이 대사교관계를 맺은지 62년째 되는 날이다.

박 승 영

과 정 조 롱 에 몰 려 《 몽 골 》 에 영 기 아 린

로조들과 군중의 파업과 시위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격화되고있는 부르조아지주들과 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대립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오늘 유럽나라 정부들의 공통적인 골치거리라는 재정적자문제이다. 현재 세계를 휩쓸고있는 금융위기가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동맹 나라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이나 엄청난 빚더미에 눌러있는 유럽동맹 나라들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실례로 그리스를 들수 있다.

올해에 들어와 그리스는 국가채무가 총내부총생산액의 약 130%로 늘어났는데 이 막대한 빚을 국가가 더는 물지 않는 상태에 처하여 최악의 위기이 직면하게 되었다. 그후 유럽동맹 나라들의 구제자금을 받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그대과도 그리스는 3년이상간 수백억EUR의 재정적자를 삭감해야 하는 아름다운 부담을 걸머지게 되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나라들의 처지도 별로 한 차이를 없다. 현재 영국 1인당 채무액에 있어서 아일랜드, 이탈리아, 벨지오는 각각 2만 US\$계선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프랑스와 도이힐란드는 그 계선으로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투기적이고 무정부적인 자본주의경제방식의 필연적산물이다.

유럽동맹 나라들이 심각한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도나도 진속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진속정책은 본질상 근로대중의 입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며 년금을 줄이는 등 다양한 재정공간을 리용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반인민적인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근로인민대중에게 넘겨주어 움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는 동시에 착취계급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정책은 심각한 경제위기이 발달되는 팽만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당국의 반인민적인 진속정책에 근로대중이 대규모적인 파업과 시위로 맞서나선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목되는것은 유럽에서 다발적인 대규모파업과 시위들이 단행된 바로 그날에 유럽동맹위원회가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동맹나라들에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밝힌것이다. 이로 하여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근로대중의 드센 반발을 쫓기우면서도 계속 진속정책을 실시하려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앞으로 유럽나라들에서 정부 및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더욱 심화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유럽동맹 나라들이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반인민적인 진속정책에 매여달리지만 그것은 더욱 심각한 사회위기를 가져올뿐이다.

본사기자 전 영 희